구체적이고 현실적인 「尊嚴」

尹 在 天 〈중앙대 문리과대학 국문과 교수〉

필 자
▲중앙대 대학원 국문학과 졸업
▲한국수필문학회 회장
▲국제펜클럽·한국신문예협회이사
▲전국대학신문 主幹教授협회 회장
▲중앙대 문리과대학 국문과 교수(현)
▲저서 : 「國文學辭典」, 「新文章作法」, 「世界名隨筆의 理解」, 「요즈음 사람들」, 「처음과 끝 그리고 그 사이」외 다수.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선 언어를 사용할 능력을 가졌다는 점과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지구상엔 인간만이 아닌 수많은 생명체가 서식하고 있지만, 그들 중에 어느 것도 저희들끼리 파당을 구성하는 생명체는 아마 없을 것이다. 결국, 그러한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다는 점이 좋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것들 때문에 불행한 역정은 시작되었는지 단정짓기 곤란한 귀결에 이를 때가 있다.

누구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풍요롭고 윤택하며 남다른 의미를 지닌 것이기를 원한다. 누군들 가난하고 싶어 가난하겠으며 남에게 굽신거리고 싶어 기를 펴지 못하고 살겠는가. 생각할수록 눈물겹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가끔 연구실을 찾아온 월부 책장수와 여러 가지 상품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적선(積善)을 구하러 온 것도 아니고 정당한 상거래의 인연을 맺기 위해 왔지만, 때로 못 올 데를 온 것처럼 쩔쩔 매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낯선 곳이요, 드나들며 얼굴 익힌 사람이 아니니 일단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낯설음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보내고 나면 웬지 죄지은 기분이고 공연한 삶의 비애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

인간은 나, 남 없이 다 똑같은 것이다. 누구 하나 대단할 것도 없고, 또 누구의 삶이든 덤으로 던져진 값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어느 세월 동안 홍청거리며 살아왔다. 어쩌다 거리를 걷다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

어딘가 불안해 보이고 어떤 일이라도 금방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요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의 홍청거림이나 허둥댐에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교통사고가 많다는 근본적인 요인도 이런 데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작은 땅덩이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북적거리다 보니 차가 사람을 치는지 아니면 사람이 달리는 차에 몸을 갖다 대는지는 모르지만 하옇든 국제적인 뉴스감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인간학(人間学)일 듯하다. 우선 인간의 존엄함을 저마다 통감해야 한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다 존귀한 나름의 의미가 있다. 어느 누구의 일시적 향락을 위해 희생되어도 좋은 그러한 생명체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우리의 도덕은 말할 수 없이 퇴락했다. 모든 것이 돈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고, 몸에 부착시킨 보석의 양에 따라 인간의 평가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뿌리없이 만들어진 것인지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누구나 자기의 목숨과 재산이 귀하듯 남의 것도 더없이 소중한 것이다.

많다고 하여 존귀한 것도 아니며, 적다고 하여 무시되어도 좋을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행해야 할 일은 남의 위에 군림(君臨)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약자에겐 맹수보다도 사납고, 강자 앞에선 그럴 수 없이 비굴할 정도로 약한 사람을 본다. 아래 사람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윗사람은 신처럼 받드는 그러한 존재말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사회 일각을 메우고 있는 한 인간 삶의 복락(福樂)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체의 일원이다 보니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이나 그것도 지나치면 서로가 불편할 것이다. 이 모두가 지나친 결과중심(結果中心)의 행정에서 비롯된, 한 명의 상급자 편견에 의해 일의 성패를 규정짓는 잘못된 습성과 사회인식의 결과라고 본다.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 인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 보다 구체적이어야 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정신의식은 요즈음 과도기를 지나고 있다. 일정한 계율에 의해 억압되어 있던 상태에서 조금씩 사물의 본질을 바로 규명하고 인간 삶의 바른 길을 찾아내고 있다. 그것이 조금은 과격하기는 하나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과도기의 마찰음일 수 있다.

우리가 먼저 해야할 일은 모든 일을 숙고하는 태도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체일 것이라는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야기로 「사람 팔자 시간문제」라는 말이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처지로 만날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처지로 만날지 모르니 성심성의껏 대하자는 얄팍함은 아니다.

윗사람에게는 그 위치에서 정당한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실무자로서의 견해를 피력하고 아랫사람에겐 그 일에 전문인으로서, 선배로서의 조언이 가장 바르고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 무조건 받드는 행위가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해서 종국에 가선 파국에 들어간 예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지 않은가. 그것은 받드는 것이 아니라 우롱인 것이다.

아랫사람의 의견이라고 해서 언제나 조잡하고 치졸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참신하고 신선한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른다. 중간자의 입장에서 행해야 할 일은 이 둘의 적절한 조화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적절한 참모의 판단이 행해져 실무에 적용되어야 한다. 순간적으로 좋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오래도록 좋은 사람이다. 언제나 변함없으면서도 항상 참신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인인 것이다.

웃사람에겐 정확한 사람, 아랫사람에겐 정이 있는 사람만이 모든 이에게서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우리 모두 흥청거림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만이 옳고 나의 생각만이 삶의 정도(正道)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인간의 참다운 가치를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인간이 다른 동물은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을 가졌듯 남다른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신(神)이 부여한 능력이 죄스러움을 낳는 악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일에 부지런해야 한다. ♣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인간학(人間学)일 듯하다. 우선 인간의 존엄함을 저마다 통감해야 한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다 존귀한 나름의 의미가 있다.”